크린크리에티브, LCD 세정제 개발

음성공장에 3000톤 설비 건설 … 컬러 레지스트 잔유물 효과적 제거

크린크리에티브(대표 이병구·정구동)가 TFT-LCD 분야에 적용되는 공정재료인 <Green Cleaner>를 개발해 본격적 생산체제를 갖추고 가동을 시작했다.

<Green Cleaner>는 TFT-LCD용 대형 유리기판 위에 Color 레지스트를 도포한 후 외곽부분에 남아있는 잔유물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환경친화형 세정제(Edge Bead Remover)로 2004년 기준 약 200억원의 시장규모를 예상하고 있다.

<Green Cleaner>는 2001년 개발에 착수해 2년만에 개발된 제품으로 2003년 10월 삼성전자로부터 품질 인증을 획득했으며 공정안정성을 바탕으로 컬러필터로 시장을 확대할 예정이다.

충북 음성 공장에 <Green Cleaner> 3000톤의 생산설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TFT-LCD 메이커에서 차세대 신규 라인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연평균 16% 이상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한편, 크린크리에이티브는 일본기업 Parker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앞으로 반도체, LCD 분야에 사용되는 공정재료의 전략제품에 대해 공동개발 및 판매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.

크린크리에티브는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씨큐브디지탈과 반도체, LCD, 휴대폰 분야에 대한 부품, 소재의 협력 연구개발 체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환경친화형 공정재료 분야의 전문기업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방침이다. <심혜련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11/20>

Copyright ⓒ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